

매거진명예기자 리포트

한민족 슬픈 유랑의 역사 : 4100km 파노라마

김석동 명예기자
장평인문사회研 대표

김석동의 실�크로드 대장정 ⑤

유라시아 기마민족의 발원지 또는 중요한 이동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이칼 호수로의 여행길에 올랐다. 이번 여행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자들의 로망인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로 가서 바이칼호와 울훈섬을 찾는 여정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3시간이 채 못 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블라디보스토크~바이칼호, 시베리아 횡단열차 기행

부동항을 찾아 남하한 러시아가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차지하고 건설한 이 도시는 러시아 83개 연방지역의 하나인 연해주(프리모르스키 지방)의 주도다. 두만강으로 함경도와 접하고 있는 연해주 일대는 풍광이 우리나라와 흡사했다. 지형·토질, 나무와 야생화 등 식생도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함께했던 전문가의 설명이다. 1863년 함경도 지역 농민 13가구가 연해주에 이주한 이래 한인들의 이주는 계속됐고, 1910년을 전후해서는 애국지사의 망명·이주가 줄을 이었다. 일제강점기 중에는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대거 옮겨왔다. 이들이 형성한 한인마을이 지신하·연추 등이며,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신한촌을 세웠다. 이렇게 연해주는 근세에 들어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되지만, 이미 고대로부터 한민족과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

오전 11시께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모스크바까지 9288km를 달리는데, 이르쿠츠크까지도 33개역 4107km를 70시간에 걸쳐 가야 한다. 고조선 이래 오랫동안 한민족 삶의 터전이었던 만주 지역 외곽을 달리는 구간이다. 2시간을 채 못 가서 열차는 지선에 있는 '라즈돌로예'역을 스쳐 지난다.

희한의 역사가 서린 곳이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스탈린은 연해주에 살던 17만명 이상의 한인 전체를 이 역 등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실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처음 2년간 1만2000명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처참한 상황

이었다. 그러나 고려인이라 지칭되는 한인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해 살아남았다. 현재 연해주에는 5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3만여 명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재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이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열차는 약 2시간 후 연해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우수리스크'에 도착한다.

연 해주

는 만주의 북

간도와 함께

수많은 애국지사

들이 의병과 광복

군이 되어 조국 광복

을 위해 일제와 분연히

맞서 싸운 항일운동의 거

점이었다. 이범진 초대 러

시아 공사는 연해주 독립운

동의 지원자였고 헤이그 특사

사건의 후견자였다.

1906년 이준·이상설이 블라디보

스토크에서 합류해 시베리아 횡단열

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

도록 도왔고, 자신의 아들 이위종도 합류

시켰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이후

이준은 순국했고, 이범진은 경술국치 이듬해

인 1911년 1월 13일 자결했다. "나는 우리의 적

들에게 복수할 수도, 그들을 벌할 수도 없는 절

망적인 상황에 부딪혀 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

19세기 중엽 연해주 이주

지형·토지... 한반도 중부와 닮아

횡단열차 출발점 블라디보스토크

독립운동 거점 우수리스크

헤이그역사가 달렸던 이 철도

70여시간만에 드디어 바이칼호

곳곳서 마주치는 우리민족 숨결

의 유서 내용이다. 그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았다. 이상설은 죽어서라도 동해로 흘러 고국에 가고파 하여 우수리스크 인근의 라즈돌로예강(스위프강)에 유해가 뿌려졌다.

열차는 계속 달려 밤 11시께 아무르강변에 위치한 극동 최대의 도시 '하바롭스크'에 당도한다. 여성 사회주의운동가, 독립운동가 김알렉산드라가 1918년 영웅적 최후를 맞은 땅이다. 철로변에 인근 주민이 나와 팔기 마귀 등 과일과 집에서 구운 과자류를 팔면서 여행객을 맞고 있어 잠깐이나마 피로를 풀어준다. 몇 개의 역을 더 지나 다음날 오후 6시가 넘어 만주 대륙의 최북단에 접하는 '스코보로디노'역에 이르면 열차는 다음날 아침 8시께 네르차강을 건너 과거 중국·러시아의 교역 중계지였고 네르친스크조약이 체결된 도시 '네르친스크' 인근을 지난다.

이제 열차는 서쪽으로 몽골 국경지역으로 다 가간다. 이곳부터는 광활한 대초원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70시간을 달린 열차는 아침 8시가 좀 못 돼 바이칼호변을 돌아 이르쿠츠크에 당도한다. 이르쿠츠크는 동시베리아의 중심도시로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리는 곳이다. 정치범의 유형지이자 10월 혁명 후 러시아 내전의 격전지이기도 한 역사가 서린 곳이다. 마침내 바이칼 호수가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담수 호로 인류가 400년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담고 있는 바이칼 호수는 북방초원로의 중심에 위치해 한민족의 시원지 또는 이동경로로 유력 시되는 곳 중 하나다.

이르쿠츠크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샤머니즘의 고향이라 일컬어지는 신비의 땅으로 향한다. 버스로 4시간 동안 약 250km를 달려 나루트에 도착해 바지선을 타고 바이칼호의 22개 섬 중 가장 큰 울훈섬에 내린다. 부두에서 군용차를 개조한 지프를 타고 다시 초원길을 약 1시간 달리면 '쿠지르' 마을이다.

가는 곳곳에서 마주치는 옛 우리나라나 몽골에서 볼 수 있는 성황당과 유사한 돌무지와 나무에 묶은 항경천이 인상적이다. 4500km를 달린 끝에 숙소에서 마침내 휴식의 첫 발을 맞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섬이다. 다음날 울훈섬의 상징 '부르한바위'를 방문하고 이어 섬의 북쪽 끝에 있는 '하보이콧'에서 바이칼 호수의 장대한 전경을 눈에 가득 담는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바이칼 호수로 이어진 이번 여정은 한민족의 시원, 고대로부터 광활한 만주 지역 일대에서 전개된 한민족의 역사, 근세 들어 한민족의 애환과 독립운동을 위해 불타올랐던 선혈들의 발자취 등 한민족 삶의 흐름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는다.

최종진 기자 도움

자격증이 더해진 내 손안의 Smart MBA

MBA 대중화를 꿈꾸며 2003년 첫 선을 보인 휴넷 MBA가 휴넷 Smart MBA로 완벽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격증 자동 취득은 물론 오프라인의 깊이까지 더해, 스마트 기기 최적화 콘텐츠로 재탄생한 휴넷 Smart MBA! 정부지원제도(고용보험합금/근로자카드)를 이용하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강 가능하오니 휴넷 Smart MBA와 함께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히 새로워진 휴넷 Smart MBA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 (모바일-PC 100%연동)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 구성은 물론 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Tool을 제공합니다.

자격증 자동 취득



휴넷 Smart MBA 이수시 경영능력인증시험 2급 자격증이 자동 취득됩니다.

5개월 단기, 경제적 MBA



5~7개월 단기과정으로 정부지원제도 이용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속 표 참고)

월 1회, 오프라인 특강



월 1회 오프라인 특강이 제공되며 MBA 교수진은 물론 다양한 강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4만 동문 네트워크



대한민국 최대 동문인맥을 통해 학습 노하우는 물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 매 월 말일 마감(고용보험합금/근로자카드 과정으로 매월 마감일 상이)
- 학습방식 : 모바일/온라인(100% 학습 연동)
- 수료혜택 : 경영능력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휴넷 Smart MBA 수료증 제공
- 부가서비스 : 프리미엄 지식영상 콘텐츠, 모바일서비스, 성적우수 장학금, 교재, e-book, 학습독려서비스, 동문회자동가입

	휴넷 Smart MBA	휴넷 Smart MBA-전략심화과정	휴넷 Smart MBA-마케팅심화과정
학습기간	5개월(매 월 1일 시작)	7개월(매 월 1일 시작)	7개월(매 월 1일 시작)
온라인 커리큘럼 (필수)	1개월차 : 생생경영학 2개월차 : 전략경영 3개월차 : 인사조직 4개월차 : 마케팅 5개월차 : 회계재무	1~5개월차 : Smart MBA와 동일 6개월차 : 학신전략 7개월차 : 전략수립실무	1~5개월차 : Smart MBA와 동일 6개월차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7개월차 : 마케팅전략수립실무
오프라인 커리큘럼	오프라인 특강(매 월 1회), 신입생 환영식(입학식 1회)		
교육비	130만원	160만원	160만원
정부지원제도 이용시 교육비	고용보험 합금과정 환급금액	우선지원기업 456,000원 중견기업 304,000원 대기업 190,000원	우선지원기업 601,920원 중견기업 401,280원 대기업 250,800원
	근로자카드 과정으로 신청시 지원금액	총 지원금 800,000원 정부지원금 380,000원 휴넷지원금 420,000원	총 지원금 1,100,000원 정부지원금 501,600원 휴넷지원금 598,400원
	본인부담금 500,000원	본인부담금 500,000원	본인부담금 500,000원